Henkel, 350도 고내열 접착제 공급

헨켈테크놀러지스가 350도의 고온에서 견디는 고내열 접착제를 공급한다.
헨켈테크놀러지스는 세계 최초로 극심한 열과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산업용 접착제 3종을 출시했다.
<록타이트> 브랜드로 선보인 나사고정제는 최고 350도, 배관밀봉제는 최고 280도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도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혐기성 나사고정제와 배관밀봉제가 150도까지 견디는 것에 비해 온도 임계치(자극에 반응하는 수치)의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일러실, 열처리 공정, 유리 제조, 정제소 등 열 발생률이 높은 산업현장과 산업용 오븐, 펄프 및 제지, 금속 구조물, 스팀 라인 등 고열의 제품군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열제품을 수리할 때도 간편한 접착제 사용으로 수리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타이트 접착제 사업부 심재홍 부장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세계 최초로 350도의 고온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하는 고온용 록타이트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며“ 고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현장에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사용으로 완제품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0/1/4>